

계란수출시장이 넓어지고 있다

6월 4일 본회에서 사우디에도 수출

南斗熙

그렇게 우리에게 생소하게 생각되고, 불가능하게만 생각되던 계란 수출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궁하면 통한다는 말이 있다.

양계 경기가 하도 어려워서 궁여지책으로 시도한 계란 수출을 의외로 국내 일간지, T.V., 라디오에서 크게 보도하였고 이로인해 계란 수출로 값이 오를것으로 예상한 소비자들이 한판 두판 구입하기 시작하자 삼시간에 품귀 현상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다.

아침부터 양계장에는 알장수가 계란을 기다리게 되었고 대란이하 적은 알들이 귀해지자 그렇게도 체화계란으로 걱정하던 양계장이 이번에는 중란을 구해달라는 알장수들의 요청에 전지기 어렵게까지 되었다.



△ 각지에서 모여든 계란을 상자에 넣고 있다

계란 소매상들은 49원 하는 특란을 70원까지 받으므로써 소비가 위축되어 6월 둘째주부터는 다시 특란의 경우 체화 현상이 나타나 값을 내리지 않을수 없게 되었다.

“계란 수출”

참으로 매력있는 말이다.

더우기 5월 6일 홍콩수출에 이어 6월 4일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우리 계란을 수출하게 되어 일본을 제외한(일본은 주로 가공난으로 수입) 세계 주요 계란 시장에 첫선을 보이게 되었다.

또 6월 22일에는 홍콩에 그후 사우디로 수출이 계속된다.

지금까지 대체로 이들 수입국들의 한국 계란 품질에 대한 반응이 좋아 앞으로 가격문제만 해결하면 수출시장은 밝다고 보겠다.

이번호에 세계 계란의 무역동향과 각국의 형편을 간략하게 소개한것도 이런 뜻에서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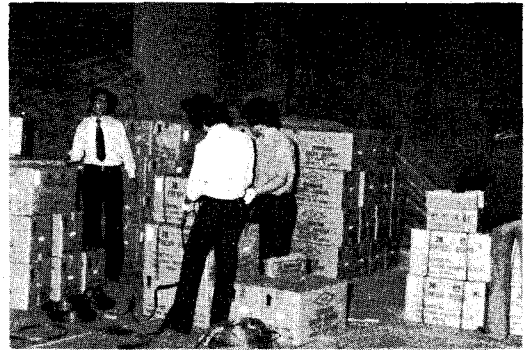
EC 회원국 간의 무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어느나라고 계란 수출에는 정부 또는 에그보드등 단체에서 수출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이다.

남아연방이 일본 홍콩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것도 정부가 운임을 부담하여 FOB 기준가로 국제 경쟁을 할수 있도록 지원하기 때문이다.

이번 수출에서 우리가 배운것도 운임만 지



△ 신선한 계란이 들은 수출상자



△ 콘테이너에 싣기 위한 밴딩작업

원하여 주면 얼마든지 수출 경쟁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앞으로 계란가격 하락을 방지하고 양계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몇 가지 느낀 점을 소개 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도 이제 외국의 G. P 센타 (오봉국 박사의 p. 26 참조) 같은 것이 필요하다.

계란유통의 효율화와 계란의품질향상가격의 안정을 위해서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하겠다.

이에 대한 설명은 오봉국 박사가 자세히 설명 하였으므로 생략한다.

둘째, 양계산업 (채란) 안정 기금의 적립이 필요하다.

이번 수출에서 적자분은 사료업자와 뜻있는 양계 농가에서 부담하였으나 국제시장은 항상 유동적이므로 신속히 대처할수 있도록 전담 기구와 기금이 필요하다.

5억의 기금만 모아도 연간 이자 수입이 1 억원이 넘게 되고 이 금액으로는 5 백만개 ~ 천만개를 수출할수 있게 된다.

년중 2회 값이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큰 역할을 할수 있는 금액이 된다.

셋째, 수출에 대한 정부의 더욱 적극적인 지원이다.

예를 들면 수출 물량에 한하여 현재 수입 옥수수에 부과되는 사료안정기금 등을 계산하여 환불하여 주는 방법등이다.

그외 수출 금액의 전부는 아니라도 일정비율의 금액에 바나나등을 수입할 수 있는 링크 불을 주는 방법도 100만 양계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방안이 될수 있다. 축협이

국내 계란 가격 하락시에는 수출량에 대해 선임을 지원하는 것 등이다.

이번 수출에서 보여준 양계인의 유관기관의 협조도 계속 유지되어야 하겠다.

멀고 먼 사우디에는 우리 동포가 많이 나가서 맘으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으며 우리가 생산한 계란이 가족과 떨어져 외국에서 고국을 그리는 우리 동포들에게도 전해진다고 생각할때 우리의 마음은 더욱 흐뭇하고, 그곳 동포들이 계속 우리가 생산한 계란을 먹기를 원하고 있어 우리의 수출은 이런 면에서도 뜻이 있다.

이번 사우리 계란 수출은 6월 햇과일철이면 어김없이 하락하는 난가에 어느정도 제동을 걸었다.

이번 수출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본회 이상운 회장 대행, 김광옥 채란담당 부회장의 주관아래 사료협회 (회장 정태원) 청천농장 (회장 허돈) 한국계우회 (회장 주원술) 천호 계우회 (회장 엄홍용) 동두천 분회 (회장 김광옥) 교하 농장 (대표 한명복) 등 생산자의 협조와 동물 검역소 김포지소 (소장 이창립)의 신속 정확한 검역, 서울세관의 통관협조와 수출대리점인 회창물산(주)의 신속한 업무연락과 처리, 그리고 작업인부를 사지 않고 협회 직원들이 밤 늦게까지 직접 작업하였고, 작업장소는 한일사료(주) (대표 차두홍)에서 이번에도 제공하였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불협화음 없이 조화를 이루어 하나의 하모니를 형성,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었다.